

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, 청년농 소통 간담회 가져

✎ 오공환 기자 | ⌚ 승인 2025.03.12 06:07 | 📄 호수 1003

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확대 농지 확보 및 영농 정착 지원 강화

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(지사장 노경환)가 11일 청년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‘청년농 소통간담회’를 가졌다.

이번 간담회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, 공사 담당자 등 10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,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. 또한, 농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.

영주봉화지사는 농지은행의 ‘맞춤형농지지원사업’ 및 ‘농지임대수탁사업’을 통해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돕고 있다.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청년농이 농지를 장기 임차한 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‘선임대 후매도사업’과 ‘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’ 등의 예산을 확대하고, 초기 자본 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.

노경환 지사장은 “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들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”며 “이번 소통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‘2025년 선임대-후매도사업’의 2차 지원 대상자 모집이 다음달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진행된다.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포털(www.fbo.or.kr)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(1577-7770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